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7. Vol. 18. No. 2. pp. 5~29.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장신재* · 양혜원**

초 록

본 연구는 가족요인인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과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총괄적 구조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 및 개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의 2005년 청소년 패널데이터 중 초등학교 4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에는 2,844명의 초등학생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우울은 감소하고, 공격성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한 아동일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적응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부모-자녀관계, 우울, 공격성, 학교적응, 구조방정식모형

* 제1저자, 서울장신대학교
** 총신대학교

I. 서 론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아동기의 학교적응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는 과도한 학습부담이나 또래관계 문제 등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에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텔레비전을 그만 보고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꾸중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동아일보. 2007. 1. 24.).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급속히 저연령화되어, 2001년에는 8.5%에 불과했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2006년에는 17.8%로 늘어나서, 중학생 16.8%, 고등학생 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아동이 성장하는 가정환경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부모-자녀 간에 형성된 건강한 애착관계와 자녀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도 감독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부모-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 부족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감독 소홀 등은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승희·이은해, 2004; 한미현·유안진, 1996; Crick, 1997; Parker & Benson, 2004; Mize & Petit, 1997; Crick & Dodge, 1994; Cohn, 1990).

또한 우울이나 공격성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도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박성연·강지흔, 2005; 이정윤·이경아, 2004; Estevez, Muzitu, & Herrero, 2005). 우울은 그동안 주로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로 여겨졌으나, 근래에는 우울증상으로 정신과를 찾는 아동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서울 강남과 분당 지역 신경정신과 병, 의원에는 "죽고 싶다"고 찾아오는 초등학생들이 전체 환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러한 아이들의 70% 이상이 소아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7. 1. 26). 공격성은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Coie & Dodge, 1998), 이후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지표로 알려져 있다(Farrington, 1978).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울 뿐 아니라 공

격성도 두드러지게 과격화,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뚜렷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이경님, 2006; 박성연·강지흔, 2005). 상기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는 그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런데 부모-자녀관계, 아동의 우울, 공격성 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호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영미·민하영, 2004; 손승희· 이은해, 2004; Mize & Petit, 1997; Crick, 1997; Crick & Dodge, 1994; Alloy et al., 2001). 또한 아동기 우울은 공격성과 밀접히 관련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과 달리 우울 감정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서 침울한 정서를 나타내기 보다는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인 행동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이영미·민하영, 2004에서 재인용). DSM-IV의 진단기준은 아동과 청소년기에는 우울한 기분 대신에 짜증스러운 기분(irritable mood)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학교부적응이 심각하고, 우울이나 공격성의 저연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동 대상의 연구는 청소년 대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부모-자녀관계, 우울, 공격성 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박성연·강지흔, 2005; 이은영·김경혜, 2005; 옥경희·김미해·천희영, 2002),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이경님, 2006; 이정윤·이경아, 2004). 대다수 연구가 특정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박성연·강지흔, 2005; 이은영·김경혜, 2005; 이정윤·이경아, 2004; 옥경희 외, 2002)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 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총괄적 구조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요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과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경로를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 및 개입 방안의 구체적인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학교적응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는 학교의 규범과 질서에 따른 조화로운 행동이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강조하거나(민영순, 1994) 아동의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과 정서적 적응을 중시하는(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학업성취가 학교적응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며,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 또래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박효정·최상근·연은경, 2004), 또래관계 역시 학교적응의 중요 지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학업성취 수준과 또래관계가 원만한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2.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크게 두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정서적 관계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행동적 관계의 차원이다(Barnes and Farrell, 1992; Baber, 1997; Cummings, Davies, and Campbell, 2000).

부모-자녀관계의 정서적 차원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라고 하겠다. 애착이란 개인이 자신과 가장 친근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Bowlby, 1973). 애착은 영아와 주양육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개념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내적 역동성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기초하여 생애초기 뿐 아니라 이후 전생애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된다(Bowlby, 1988).

애착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

로 여기고, 이러한 긍정적 자아상은 또래관계로 확대되어 타인들도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반면, 부모에게 애착되지 못한 아동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로 인해 적개심을 갖게 되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불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안정적 애착관계를 이룬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로부터 덜 사랑받고 더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교사의 평가에서도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미영, 1998; Cohn, 1990, Ainsworth, 1978).

부모-자녀관계의 행동적 차원에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감독을 들 수 있다. 감독은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인 돌봄(caregiving)의 주요내용으로, 애착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다(Bowlby, 1969, 1980). Bowlby(1980)에 따르면, 돌봄이란 "애착관계를 형성한 개인을 보호하고자 보완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깊게 살피고"(keep a watchful eye)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Bowlby, 1969)을 뜻한다.

이러한 부모의 감독은 특히 자녀의 공격성이나 행동문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된다. 직접적으로는 부모가 적절한 감독을 통하여 자녀문제에 주목함으로써 문제를 교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취하게 되고, 간접적으로는 자녀가 좋지 못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부정적인 또래관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Patterson, Reid & Dishion, 1992; Wilson & Hermstein, 1985).

이외에도 다수의 실증적 연구들이 부모-자녀 간의 애착과 자녀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등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정서적 발달, 문제행동, 학업성취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왔다(권순용, 2006; 이진숙·정혜정, 2004; 이정윤·이경아, 2004; Garmezy, 1993; Vuchinich et. al., 1992; Dryfoos, 1989).

2) 우울

1960년대 중반까지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존재하느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동에게서도 성인과 유사한 증상을 포함하는 우울증이 존재한다는 기본 입장이 제기되었고, 소아우울증이 하나의 정식 병

명으로 기술되기 시작하였다(조수철 · 최진숙, 1989).

아동기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습득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우울은 사회적 유능감이나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에 부적응을 초래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우희정·최정미, 2004). Blumberg와 Izard(1985)의 연구결과, 우울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 전반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옥경희 외(2002)의 연구에서 우울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성적이 낮고, 또래관계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Hodges와 Perry(1999)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또래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격성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의도적인 행동을 뜻한다. 그러나 공격성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야기하는 정서 상태인 분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Orpinas & Frankowski, 2001).

선행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공격성은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정윤과 이경아(2004)의 연구에서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학교적응 수준이 낮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은 특히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Coie와 Dodge(1998)는 공격성이 또래거부를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박성연과 강지흔(2005)의 연구결과, 공격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소속감과 리더십이 낮으며, 학교생활이 부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Olweus(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교사에 대한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았다. 김광수(2003)는 분노대처방식이 공격적인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부정적임을 밝혔다.

3. 부모-자녀관계, 우울, 공격성과 학교적응

부모-자녀관계, 우울, 공격성 등은 각 요인이 개별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이들 요인들 간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 요인인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우울 성향과 밀접히 관련된다. Messer 와 Gross(1995)는 아동의 우울증상을 가족과의 다양한 상호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Cole과 Kaslow(1988) 역시 아동이 표현하는 우울증상은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상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다양한 측면 중 애정이나 의사소통 등 정서적인 유대관계, 즉 애착은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더 온정적, 수용적, 지지적일수록 아동에게서 우울이 발생할 위험이 낮다는 것이다(이영미·민하영, 2004; Alloy et al., 2001)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Patterson, Reid, 그리고 Dishion(1992)에 의하면, 강압적인 가정환경은 아동의 공격성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환경요인이다. 공격성의 경우에는 부모-자녀관계의 정서적 측면과 지도감독이 모두 관련되어서, 다수의 연구가 부모가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자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아동의 공격성이 낮은 반면(손승희·이은해, 2004; Mize & Petit, 1997),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아동의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Crick, 1997; Crick & Dodge,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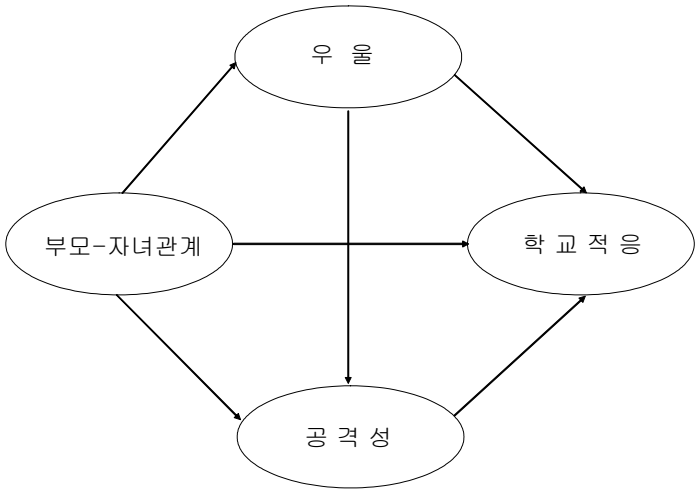
또한 아동의 우울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상이 성인기 우울증상과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아동은 성인과는 달리 우울한 기분을 갖기보다는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한 기분을 갖는다(신현숙 외, 2004). 아동기에 나타나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의 기저에는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Chiles et al., 1980), 아동기와 청소년기 우울은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와 같은 파탄적 행동문제와 공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된다(Angold et al., 1999; Kovacs., Paulauskas, Gatsonis, & Richards, 1988). 이에 대하여 강경미(1994)는 아동은 위축되거나 불안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불편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신체적 호소나 행동으로 표현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아동의 학교적응은 부모애착, 부모감독과 같은 부모-자녀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갖으며, 우울은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부모-자녀관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학교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구의 소득, 성별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패널데이터 중 2005년도 초등학교 4학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데이터는 규모비례확률표집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12개 특별시·광역시·도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수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학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교에서 무작위로 1개 학급을 뽑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학급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집단 면접하는 방식이었으며, 가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설문하기 위해 가구별로 전화를 걸어 부모와의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1].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이 모두 응답한 2,844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학업성취 3 문항과 또래관계 3 문항으로 측정하여 두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학업성취는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의 성취 정도(성적)를 측정하였고, 또래관계는 '외로움의 인지', '친구와의 관계', '나에 대한 평가의 고려' 의 3 문항으로 리커트식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적응의 문항 신뢰도는 Chronbach' α 계수가 .61로 나타나 측정도구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청소년개발원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2004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여 총 2949명의 패널을 구축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차년도 조사 성공률은 2003년도 2004년도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뽑힌 2,9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 중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례 105사례(3.56%)를 제외한 2,844사례(96.44%)였다.

2)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애착 6 문항과 부모감독 4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즉, 부모-자녀관계를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부모자녀의 애착 정도는 '상호이해', '애정표현', '부모-자녀대화', '자녀의 솔직함', '허물없음', '같이 보내는 시간' 등의 문항으로 리커트식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고, 부모감독은 자녀가 외출했을 때 '소재지', '동반 아동', '활동', '귀가시간'에 대한 인지 등의 문항으로 리커트식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자녀관계의 신뢰도는 Chronbach'α 계수가 .86로 나타나 측정도구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우울

아동의 우울에 대해 '자살충동', '슬픔', '불안', '걱정', '관심과 흥미' 정도의 5 문항을 리커트식 5점 평정척도로 조사하였다. 우울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α 계수가 .79로 나타났다.

4)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자신을 화약 같다고 생각함', '구타 충동', '물건을 던지고 싶은 충동', '싸우는 정도에 대한 상대 평가' 등 4개의 문항으로 리커트식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공격성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α 계수가 .78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중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2,844개의 설문은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작업(data cleaning)을 진행한 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PC+Package(version 12.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Amos(Version 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결측치를 고려한 모수추정방법인 FIML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결측치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주요변수의 결측치가 5.1%를 넘지 않았다. 또한 결측 형태의 체계성 검토를 위해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와 결측치가 없는 사례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2,844)

변 수	집 단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1,524	52.9
	여 자	1,320	45.8
가족구성	부모 동거	2,735	95.0
	부친 동거	38	1.3
	모친 동거	48	1.7
	부모 부재	11	0.4
연 령	9세	1	0
	10세	12	0.4
	11세	2,472	87.0
	12세	355	12.5
	13세	3	0.1
거주지역	서울·경기	1,185	41.1
	광역시	803	27.9
	강원도	75	2.6
	충청도	200	6.9
	전라도	206	7.2
	경상도	375	13.0

1)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에는 분석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 가족형태, 거주지역 등이 제시되어 있다. 남아와 여아가 각각 52.9%, 45.8%씩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별 월평균 소득은 3,091,100원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구성형태는 95.0%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5.0%가 편부모 가구 또는 부모 모두가 부재한 가구 구성형태를 보였다. 분석대상 아동의 연령은 99.5%가 11세와 12세였다. 대상 아동의 약 41%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약 28%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거주자였다.

<표 2> 각 변수의 일반적 특성

(n=2,707)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학교적응	3.65	.59	우울	2.12	.85
부모자녀관계	3.63	.73	공격성	2.05	.85

〈표 2〉는 학교적응, 부모-자녀 관계, 우울 및 공격성의 일반적 특성들이 제시되어 있다. 학교적응은 평균이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도 모두 학교적응 수준과 비슷한 중간수준 이상의 평균을 보였다. 우울 및 공격성 수준은 중간 미만의 정도를 보였는데, 우울이 공격성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우울의 표준편차가 다른 차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표 3〉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결측치와 정규성을 검토하였다[2]. 각 변수에서 발생한 결측치는 〈표 3〉에서와 같이 최대 146개(5.1%)로 모수추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토를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참조하였다[3].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2 미만, 1

2) 다변량 통계분석에서의 기본가정은 정규분포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선형성(Linearity) 등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다변량통계분석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3) 〈표 2〉, 〈표 3〉은 data가 다변량 통계분석에서의 기본가정인 정규분포성, 등분산성, 선형성을 만족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Kang & Mowbray, 2005)의 자료제시방법을 따른 것이다.

미만으로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3> 각 변수의 결측비율과 정규성

변 수	사례수	결측비율(%)	왜도(표준오차)	첨도(표준오차)
학교적응				
- 학업성취	2,707	137(4.8)	-.01(.05)	-.29(.09)
- 또래관계	2,707	137(4.8)	-.43(.05)	-.00(.09)
부모자녀관계				
- 애착	2,707	137(4.8)	-.23(.05)	-.18(.09)
- 감독	2,707	137(4.8)	-.35(.05)	-.23(.09)
우울				
- 우울1	2,706	138(4.9)	1.35(.05)	.92(.09)
- 우울2	2,705	139(4.9)	.81(.05)	-.28(.09)
- 우울3	2,701	143(5.0)	.50(.05)	-.74(.09)
- 우울4	2,698	146(5.1)	.34(.05)	-.66(.09)
- 우울5	2,698	146(5.1)	.81(.05)	.18(.09)
공격성				
- 공격1	2,700	144(5.1)	.94(.05)	.22(.09)
- 공격2	2,705	139(4.9)	.77(.05)	-.21(.09)
- 공격3	2,703	141(5.0)	.66(.05)	-.70(.09)
- 공격4	2,704	140(4.9)	.92(.05)	.52(.09)

2) 각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들간 상관관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적응은 부모-자녀관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울 및 공격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우울과 공격성 모두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우울은 공격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음 단계에서 보여질 구조모형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학교적응	부모-자녀관계	우 울	공격성
학교적응	-			
부모-자녀관계	.413**	-		
우 울	-.294**	-.223**	-	
공격성	-.145**	-.157**	.45**	-

p*<.05, **<.01

2.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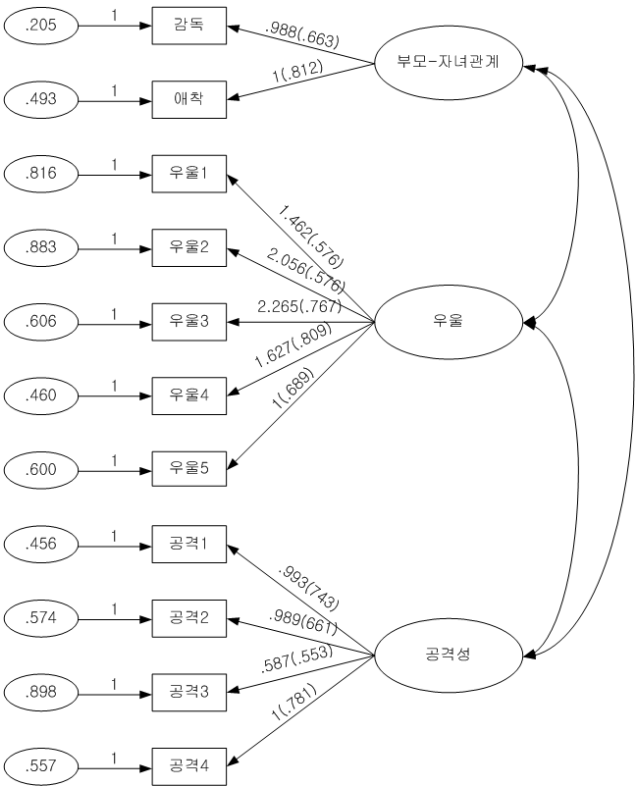
1) 측정모형분석

측정모형분석은 개념을 측정하고자 설계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 부모-자녀관계, 우울, 공격성 등의 변수는 잠재변수로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되며,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을 제외한 각 내생변수들은 실제로 관측된 문항을 그대로 지표로 사용하였고, 각 잠재변수 당 하나의 지표를 1로 고정하였다[4].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612.096(df=41), p=.000으로 카이제곱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자료의 크기를 고려할 때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적합도 지수, NFI=.925, CFI=.931, PCFI=.613, RMSEA=.060 등을 고려할 때, 본 측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5].

4) 잠재변수가 그 지표와 동일한 척도를 갖도록 잠재변수를 척도화하기 위해, 각 잠재변수 당 하나의 지표를 1로 고정한다(배병렬, 2004).

5) Hu & Bentler(1999)가 제시한 model fit의 기준을 근거로 하였다.



[그림 2] 측정모형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2) 구조모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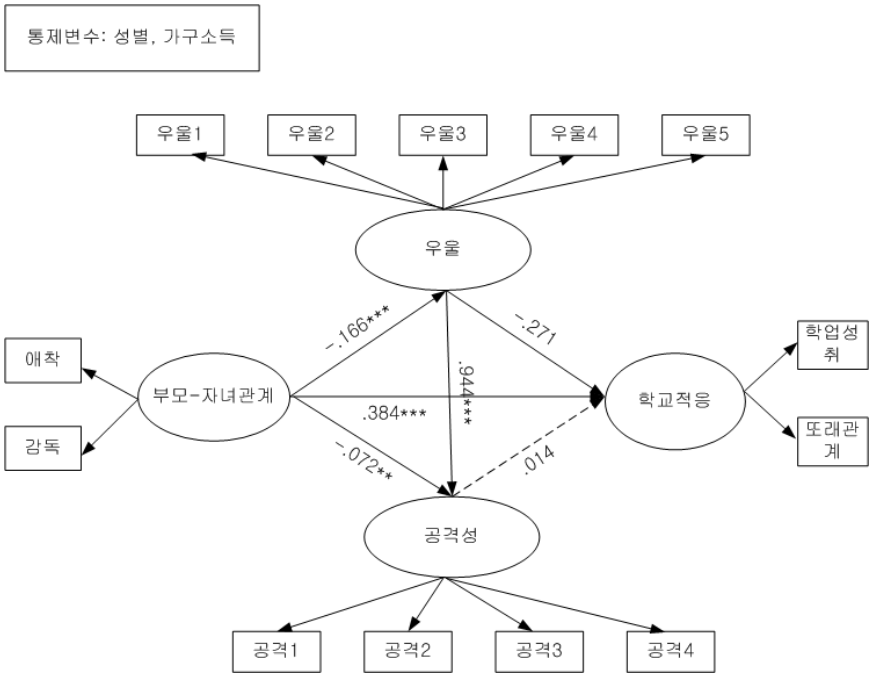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격성 →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 공격성의 경로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고, 그 외 나머지 경로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다고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우울은 감소하고(-.166) 공격성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072) 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4). 우울한 아동일수록 공격성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944), 학교적응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1). 그러나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880.359(df=79), p=.000, NFI=.925, CFI=.931, PCFI=.613, RMSEA=.060 등으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측정모형 검증결과

경 로	Estimate	SE	CR	P	Standardized
부모자녀관계→적응	.384	.026	14.956	.000	.671
우울→적응	-.271	.034	-7.871	.000	-.303
공격성→적응	.014	.016	.843	.399	.030
부모자녀관계→우울	-.166	.018	-9.258	.000	-.259
우울→공격성	.944	.061	15.513	.000	.477
부모자녀관계→공격성	-.072	.032	-2.256	.024	-.057

지금까지 분석한 측정모형의 결과를 경로도형으로 그리면 [그림 3]과 같다. 즉, 부모-자녀의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낮아지고 공격성이 감소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Cohn, 1990; 고미영, 1998; Patterson, Reid & Dishion, 1992; Wilson & Herrtein, 1985)를 통해 학교적응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자녀관계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우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림 3] 부모-자녀관계, 우울, 공격성 및 학교적응의 경로도형

한편, 우울과 같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를 통하여 변화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통로변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이 심할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공격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영미·민하영(2004), 옥경희 외(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아동의 우울은 부정적·반항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적도 낮고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동의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공격성을 공격행동보다는 공격적 사고나 충동을 중심으로 개념화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이 급증하는 등 아동들이 대단히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바, 심각한 폭력행동이나 비행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요인인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과 공격성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상 아동의 학교적응은 평균이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도 학교적응 수준과 비슷한 중간수준 이상의 평균을 보였다. 우울 및 공격성 수준은 중간 미만의 정도를 보였는데, 우울이 공격성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감소하고, 공격성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아동일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적응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을 돕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의 원만한 학교적응 및 건전한 성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은 잘 알려진 바이고, 이는 본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가족단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수행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둘째, 아동의 우울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최근 아동기 우울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중한 학습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 및 학교와 가정 차원의 노력이 강력히 요구된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우울 성향을 지닌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동 관련 기관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후속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었으나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다수 선행연구의 결과(강지흔, 2005; Coie, Terry, Lenox & Hyman, 1995; Kupersmidt & Coie, 1990)와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공격성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경미(1994). 소아기 우울증 - 소아기 우울증의 개관과 발달학적 측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제5권 제1호**, pp. 3-11.

고미영(1998).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6권**, pp. 51-71.

권순영(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제54권 제3호**, pp. 329-349.

김광수(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3호**, pp. 393-410.

민영순(1994).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박성연·강지흔(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6권 제1호**, pp. 1-14.

박효정·최상근·연은경(2004). **한국 초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실태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배병렬(2004). 구조방정식 모델을 위한 SIMPLIS 활용과 실습, 서울: 청목출판사

손승희·이은해(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제42권 제4호**, pp. 167-177.

신현숙·이경성·이해경·신경수(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서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3호**, pp. 491-510.

옥경희·김미해·천희영(2002). 조절력과 부정적 정서 및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제6호**, pp. 61-68.

우희정·최정미(2004)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5권 제4호**, pp. 191-200.

이경님(2006). 아동의 개인, 가족 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제1호**, pp. 31-44.

이영미·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4호**, pp.1-10.

이은영·김경혜(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제1호**, pp. 105-119.

이정윤·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2호**, pp. 261-276.

이진숙·정혜정(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pp.47-61.

조수철·최진숙(1989). 소아, 청소년의 우울장애. **신경정신의학, 제28권 제3호**, pp. 422-436.

정현희(2003). 중학교 진학 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청소년 상담연구, 제11권 제2호**, pp. 36-46.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6). **200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2003). **2003년도 상반기 인터넷을 활용한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자료. 보도자료.**

한미현·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제17권 제1호**, pp. 173-188

조선일보. 2007. 1. 26일자 : "우리 애가 왜 갑자기 난폭해졌지?"

동아일보. 2007. 1. 24일자 : "유니 자살 영향? … "TV 그만 봐라" 꾸지람에 초등생 목매"

Alloy, L. B., Abramson, L. Y., Tashman, N. A., Berrebbi, D. S., Hogan,. M. E., Whitehouse, W. G., Crossfield, A. G., and Morocco, A.(2001).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arenting, cognitive and inferential feedback styles of the parents of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risk f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25(4)*, pp. 397-423.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and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Angold. A., Costello, E. J., and Erkanli, A.(1999). Comorbid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0(1)*, pp. 57-87.

Bagwell, G. L., Newcomb, A. F., and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9*, pp. 140-153.

Barber, B. K., Chadwick, B. A. and Oerter, R.(1992).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 self esteem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4,* pp. 128-141.

Barnes, G. M. and Farrell, M. P.(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4,* pp. 763-776.

Blumberg, S. H. and Izard, C(1985). Affective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in 10- and 11-year-old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9,* pp.194-202.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Chiles, J. A., Miller, M. L., and Cox, G. B.(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Vol. 37*, pp. 1179-1184.

Coie, J. D. and Dodge, K. A.(1998). Multiple sources of date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nion. *Child Development*, *Vol. 59,* pp. 815-829.

Cole, P. M. and Kaslow, N. J.(1988). Interaction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affect regulatio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ildhood depression, In S. B. Allet(Ed), *Cognitive process in depression*. NY: Guilford Press.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t 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Vol. 61,* pp. 152-162.

Crick, N. R,(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pp. 610-617.

Crick, N. R., and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5,* pp. 74-101.

Cummings, E. M., Davies, P. T. and Campbell, S. B.(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family proces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Dryfoos, J. G.(1989). *Adolescent at ris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stevez, E., Muzitu, G., and Herrero, J.(2005). The influence of violent behavior and victimization at school on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dolescence*, *Vol. 40(157),* pp. 183-196.

Farrington, D. P.(1978). Family background of aggressive youth. In L. A. Hersov and Berger, M(Ed.),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xford: Pergamon Press.

French, D. D. and Waas, G. A.(1985). Behavior problems of peer-neglected and peer-rejected elementary age children: Parent and teacher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Vol. 56,* pp. 246-252.

Garm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Vol. 56,* pp. 127-136.

Hodges, E. V. E. and Perry, D. G.(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677-685.

Hu, L. T. and Bentler, P.(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London: Sage.

Kovacs, M., Paulauskas, S., Gatsonis, C., and Richards, C.(1988).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II. A lo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5,* pp. 205-217.

Ladd, G. W., Kochenderfer, B. J. and Coleman C.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7(3),* pp. 1103-1118.

Messer, S. C., and Gross, A. M.(1995). Childhood depression and family interaction: A naturalistic observation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4(1),* pp. 77-88.

Mize, J., and Petit, G. S.(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e Development*, *Vol. 68,* pp. 291-311.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Orpinas, P., and Frankowski, F.(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1(1),* pp. 50-67.

Patterson, C. R., Reid, J. B., and Dision, T. J.(1992). *Antisocial interactional approach.* Eugene: Castalla Publishing Company.

Sang Kyoun Kahng and Carol T. M.(2005). What affects self-esteem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e role of causal attributions of mental illnesses, *Psychology Rehabilitation Journal, Vol. 28,* pp. 354-360.

Vuchinich, S., Bank, L., and Patterson, G. R.(1992). Parenting, peers, and stability of antisocial behavior in pre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3),* pp. 510-521.

Wilson, J. Q., and Herrstein, R. J.(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York: Simon and Schuster.

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Parents-Child Relationship,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Chang, Cin-Jae* · Yang, Hae-Won**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structure among parents-child relationship,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provide theoretical basis improv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data of 2,844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2005 Youth Panel are analy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1) parent-child relationship affects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2) children's depression affect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3) children's aggression doesn't affect their school adjustment. Suggestions with regard to improv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re offered.

Key Words : parents-child relationship, depression, aggression, school adjust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투고일 : 3월 30일, 심사일 : 5월 1일, 심사완료일 : 7월 2일

* Seouljangsin University
** Chongshin University